



'목포 8경' 유래 밝혀졌다

목포 8경 가운데 하나인 '용당귀범'. 실제로는 삼호 용당포구에서 목포 앞 선창을 오가는 뚝단배의 아름다움을 지칭하지만, 목포시의 각종 자료에는 고하도 용머리를 돌아오는 모습이며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남농 화백이 그린 목포팔경에도 '용두귀범'이란 화제가 적혀있다. <사진 오른쪽>

목포 관광의 대명사 '목포 8경(景)'이 누가 언제 명명했는지 밝혀지면서 최근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목포시는 "목포 8경을 최초로 명명한 사람은 제6대·8대 목포시장을 지낸 하동현(1952~1959년 재임)시장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유달산 유선각에 걸려있던 목포팔경 편액이 문화예술회관 수장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함께 발견된 '유선각기'에 따르면 제작 연도가 단기 4288년(1955년)으로 기록되어 이 무렵을 전후해 목포 8경이 명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목포시가 1965년에 발간한 '목포 풍아집'에 서병대 선생이 지은 '목포 8경'이라는 한시가 실려 있는 것도 함께 밝혀냈다.

이번 목포 8경에 대한 자료를 밝혀내는 데 박종학 과장의 숨은 노력이 일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중득 시장은 "하 시장은 평소 서예에 조예가 깊고 한시에 능해 목포 8경 편액의 한자를 친필로 썼다"면서 "1963년 가을 목포시 주최로 유선각에서 열린 한시 백일장 대회에서 시제 가운데 하나로 중국의 '소상팔경'을 비유한 '목포 8경'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소상팔경은 중국 후난성(湖南省) 동정

유선각에 걸려있던 편액 문예회관 수장고서 발견 하동현 시장이 첫 명명

한자 어렵고 기억 쉽지않아 '신목포 8경' 재공모 키로

목포 8경

유선기암(龜山寄巖), 고도설송(高島雪松), 달사모종(達寺暮鐘), 학도정람(鶴島晴嵐), 금강추월(錦江秋月), 입암반조(笠岩返照), 아산춘우(雅山春雨), 용당귀범(龍塘歸帆), 유달산, 고하도, 달성사, 삼학도, 영산강, 입암산(갓바위), 용당포구(뚝단배) 등의 아름다운 풍광을 일컫는다.

호(洞庭湖) 남쪽의 사오수이(灑水)강과 상장강(湘江)이 합류하는 곳에 있는 대표적인 8가지 경치를 일컫는다.

정 시장은 "목포 8경의 '용당귀범' '학도정람' '금강추월'이 소상팔경의 '원포귀범' '산시정람' '동정추월'에서 따 온 것으로 보여 목포 8경의 최초 명명자가 하 시장이였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용당귀범(龍塘歸帆)'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용당귀범은 원



제6·8대 목포 시장을 역임한 하동현 시장이 친필로 쓴 목포팔경 현판.

래 영암 삼호 용당에서 목포 앞 선창을 오가는 뚝단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인 반면, 목포시가 제작 배포한 각종 자료를 살펴보면 고하도 용머리를 돌아오는 뚝단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또 현재의 목포 8경은 한자로 대입되어 어려운데다가 기억하기 쉽지 않다는 시민 여론이 많고, 시의회에서도 현 시대와 거

기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사진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 1명 500만원, 금상 1명 300만원, 은상 2명 200만원 동상 5명 1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상금을 내걸고 조만간 '신(新) 목포 8경' 재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역~삼학도 인입철도 역사속으로

시, 이달중 레일 철거 작업

소음과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목포역과 삼학도간 인입 철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목포시는 "목포 원도심을 가로질러 목포역~삼학도 입구~삼학부두를 연결하는 삼학도 인입철도 구간(총 1.8km) 가운데 목포역~삼학도 입구 650m 구간을 올 상반기까지 정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10억여 원을 투입해 지난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데 이어 이달 중

에 레일 철거작업과 교차로 구간 포장공사를 실시한 후 6월까지 인도와 주차 공간을 조성해 차량통행 및 주민 보행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어 시는 하반기에 삼학도 공원 내에 편입된 750m 구간에 중앙광장과 대공원장, 산책로 해변

광장 등 휴식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삼학도선 인입 철도는 지난 1965년 12월 설치돼 석탄과 곡물, 목재, 면화 등을 수송하는 목포역 지선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2012년부터 석탄 수송방식이 육로 수송으로 전환되고, 삼학도 복원화 사업으로 한국제분 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데다 2015년 석탄부두마저 신항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어 기능이 사실상 상실됐다.

그동안 인입 철도 주변 200여 가구 주민은 주택과 철도간 거리가 1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과 안전사고 위험이 많으며 목포시에 민원을 제기해 왔다.

목포시 관계자는 "도심구간의 레일을 철거하고 인도를 조성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심 이미지를 만들겠다"면서 "인입철도 정비로 삼학도 복원화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1년 뒤 받아보세요"…'느린 우체통' 인기

목포시 자연사 박물관 입구와 노적봉 관광안내소에 설치된 '느린 우체통'(사진)이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 3월 자연사 박물관 입구와 노적봉 관광안내소 앞 등 2개소에 기다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느린 우체통'을 설치, 지금까지 엽서 72통을 서울 등 전국 각지로 발송했다.

시가 '느린 우체통'을 설치한 배경은 관광객들이 소중한 추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목포 재방문을 유도하고, 목포 주요 관광지가 실린 엽서를 받는 이들에게 목포를 소개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시는 자연사 박물관과 노적봉을 찾은 외지 관광객들에게 엽서 2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이에게 또는 본인에게 따르는 편지를 써 우체통에 넣으면 엽서는 1년 후에 배달된다.

시는 우체통에 쌓인 엽서를 수거해 보관해 두었다가 일일이 날짜를 계산하는



작업을 거쳐 1년 뒤에 발송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느린 우체통'은 빠름만을 좇는 현실에서 1년 전 생각하게 느꼈던 감동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게 하는 추억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며 "엽서를 받아본 사람들이 다시 목포를 찾고 있어 관광산업에도 호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목포대-산업인력공단 맞춤형 인력양성 협약

목포대학교(총장 최일)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공단 목포지사에서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공동교육훈련기관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약정 체결에 따라 목포대는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교육훈련기관으로서 10년간 총 160억원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 대상 재직자 훈련과

함께 산업현장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한 목포대 첨단기술교육센터장은 "앞으로 전남지역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목포점 061)262-9200

서울점 02)765-9940

총장점 062)227-9970

장흥점 080)222-9975

순천점 061)752-9940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5월19일까지 한정판매